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3월(제5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오이타에서 열리는 한일 민간교류의 장! 大分市  
제2회 한일 우호의 한마당 오이타시



NPO법인 한일예술문화교류회는 지난 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오이타시 J:COM 호루도홀에서 '제2회 한일 우호의 한마당 in OITA'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2월 1일, 실행위원회가 현청을 방문했습니다. 실행위원회 하시모토 회장은 '규슈에서 오는 내국인 관광객 다음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오이타를 찾아 주신다. 이처럼 한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오이타에서 한일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영화제처럼 더욱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에 다카야 기획진흥부장은 '한국과 오이타는 중요한 파트너 관계이다'며 '코로나19로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행사와 같은 민간 교류는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청을 방문한 실행위원회와 현청 직원들. 1열 왼쪽부터 다카야(高屋) 기획진흥부장, 하시모토(橋本) 실행위원장, 고레나가(是永) 부회장. 2열 왼쪽부터 후지이(藤井) 국제정책과장, 인성은(印成銀) 실행위원회 사무국장, 노지영(盧知榮) 국제교류원.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영화 상영, 전통 공연 등 한층 더 풍부해진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하모니', '장수 상회', '백자의 사람 : 조선의 흙이 되다' 등 세 편의 한일 영화 상영, 구스정(玖珠町) 소재 '구루시마 다케히코(久留島武彦) 기념관' 관장 김성연 씨의 강연, 일본 문리대학(日本文理大学) 소속 한국인 유학생이 준비한 사물놀이, 일본 전통 제사 예능 '쇼나이 코도모 가구라(庄内子供神楽)'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철저한 체온 측정 및 손소독, 입장 제한 실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관람객이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한일 양국 간의 이해를 한층 높이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꿈(日韓を越境する夢)'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장 김성연씨.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3월(제5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우사의 역사, 문화, 자연을 느껴보세요 宇佐市  
자전거로 떠나는 우사 여행 우사시



오이타현 북부, 구니사키 반도(国東半島) 윗부분에 위치한 우사시(宇佐市)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사시에서는 현재 최신형 전동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자전거 체험 코스를 준비 중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자전거를 타고 풍요로운 자연을 품은 우사 시내를 달려보세요. 봄이 서서히 다가와 날이 따뜻해지는 바로 지금, '가치 있는 도시, 우사(カチがあるまち宇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렌탈자전거 이용 안내

- 이용 요금 : 1일 300엔  
1박2일 대여 가능 / 1박 600엔
- 대여 장소 :

### ① 우사신궁(宇佐神宮) 앞

- 영업 시간 : 매일 08:30 ~ 16:00  
(정기 휴일 없음, 연말연시 연휴에는 쉼)
- 문의처 : 우사시 관광협회(宇佐市観光協会)  
0978-37-0202 (일본어 대응)

### ② JR 우사역(宇佐駅)

- 영업 시간 : 매일 10:00 ~ 17:00  
(대여 가능 : 10:00 ~ 16:00 / 정기 휴일 없음)
- 문의처 : 카페 렌게(喫茶蓮華)  
0978-37-2522 (일본어 대응)

• 사전 문의 시 대여 시간 조정 가능  
- 우사시청, 관광협회에 자전거 지도 비치 중!

## - 우사시 소개



우사 지역(宇佐エリア)

히가시혼간지·니시혼간지 윗카이치 별원(東本願寺・西本願寺四日市別院) : 옛날 규슈 내 동파(同派)를 총괄했던 '규슈사원(九州御坊)'으로 알려져 많은 참배객이 방문.



인나이 지역(院内エリア)

미치노에키 인나이(道の駅いんない) : 우사의 특산물인 인나이 유자(院内ゆず)로 만든 유자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도로 휴게소이자 라이더 하우스(바이크 여행자 숙소).



아지무 지역(安心院エリア)

히가시시이야 폭포(東椎屋の滝) : 일본 100대 폭포 중 하나로 높이 85m의 절벽을 곧게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장관.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별칭 '규슈의 거근(九州の華巖)'.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3월(제5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2월 중순~3월 초 사이의 오이타현에는 조금 일찍 봄이 찾아오는 곳들이 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요시노바이엔(오이타시 大分市)', 가와즈 벚꽃이 만개한 '요우라 반도(쓰쿠미시 津久見市)', 그리고 봄의 축제 하나 마쓰리를 준비하는 '히나순례(우스키시 臼杵市)'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맞이하고, 그 따스함을 전하고자 위 세 곳에 취재를 다녀왔다.

한겨울에 다소곳이 피어난 사군자, 매화 大分市

 **요시노바이엔(吉野梅園)** 오이타시



오이타현청에서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요시노바이엔(吉野梅園)'이라는 매화원에 도착한다. 작은 동산같은 이 정원은 2월 중순에서 3월 상순 사이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 은은한 향기로 가득한 휴식공간이 된다.

이 매화원에는 전설이 담긴 특별한 매화나무가 있다. 800여년 전 '후지와라 노부치카(藤原信近)'의 아들 '지카사토(近里)'가 후쿠오카현의 '다자이후텐만구(太宰府天満宮)'에서 수행할 당시, 꿈 속에서 매화 나뭇가지 한 개를 받아 이를 정성껏 키웠다. 그러자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 가지가 굽이쳐 마치 땅을 기어가는 용과 같았는데, 이를 '와룡매(臥龍梅)'라 불렀다. 요시노바이엔은 이 와룡매 50여 그루를 포함해 분고매화, 백매화, 청매화, 홍매화 등 약 450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는 현 내에서 손꼽히는 매화 명소이다. 오래되어 말라 죽은 와룡매에 흙을 덮어주어 주변 환경을 땅

과 같이 만들어주면 다시 피어난다는 이곳에서는 매년 매화의 개화 시기에 맞추어 요시노 매화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지)

- 요시노바이엔(高崎山自然動物園)

주소 : 大分県大分市杉原537 (〒879-7882)

문의전화 : 097-537-5976 (오이타시 공원녹지과)

조춘의 햇살에 만개한 가와즈 벚꽃 津久見市

 **요우라 반도(四浦半島)** 쓰쿠미시



바다와 맞닿아 있는 쓰쿠미시 요우라 반도(四浦半島)에 가면 해안가를 따라 만개한 진한 분홍빛의 벚나무를 볼 수 있다. 조금 이른 봄에 피는 이 벚나무의 이름은 '가와즈 벚꽃(カワヅサクラ)'. 일본 본토에서 자라는 고유종 '오시마 벚나무(オオシマザクラ)'와 '대만 벚나무(カンヒザクラ)'의 야생 교배종으로, 꽃송이가 커다란 점은 오시마 벚나무를, 보라색에 가까운 짙은 분홍색을 띠는 점과 빨리 피는 점은 대만 벚나무를 닮았다. 가와즈 벚꽃은 추운 지역에서 잘 피는 대만 벚나무의 영향을 받아 일본 내에서도 빨리 개화하는 편에 속하며, 야생에서는 도태되기 쉬운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배 품종으로는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

1955년 시즈오카현 가와즈정 강가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벚나무는 가와즈정의 정목(町木)으로 지정되어 1991년부터는 벚꽃축제도 열리고 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3월(제5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이러한 가와즈 벚꽃이 혼슈를 건너 멀리 쓰쿠미시에 오게 된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 2004년 큰 태풍 피해를 입은 쓰쿠미시에서는 지역 부흥을 도모하고자, 요우라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전부터 검토해오던 가와즈 벚꽃을 심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슴이 나무의 어린 잎을 먹는 등 나무를 키우는 데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관리한 덕에 현재는 5천그루가 넘는 벚나무가 자라는 명소가 되었다. 이로써 요우라 반도는 규슈 지방에서 가장 빨리 봄이 찾아오는 서일본 벚꽃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는 ‘분고수도 가와즈 벚꽃축제(豊後水道河津桜まつり)’가 열려 걷기 대회, 사진 콘테스트, 쓰쿠미산 참치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몇몇 행사가 중지되었으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만큼 독자 여러분께서도 꽃구경을 갈 때에는 소규모(5인 이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분고수도 가와즈 벚꽃축제(豊後水道河津桜まつり)  
벚꽃 개화 장소 : 쓰쿠미 돌고래 수족관 (つくみイルカ島)~사이키시(佐伯市) 방면의 해안도로  
\* 수족관 주소 : 大分県津久見市四浦2218-10  
문의전화 : 0972-82-9521 (쓰쿠미시 관광협회)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누구보다 먼저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  
白杵市  
히나순례(うすき雛めぐり) 우스키시



일본의 대표적인 봄의 축제 ‘히나 마쓰리(雛祭り)’. 매년 3월 3일에 여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이 행사에는 ‘히나 인형’이 필요한데, 이 인형에 신이나 영(靈)이 깃들여 딸을 대신 하면 병이나 악재 등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31년 에도막부가 발표한 ‘검약령’의 영향으로 우스키의 주민들은 종이로 히나 인형을 만들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계기로 우스키 고유의 종이 히나 인형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스키 관광교류 플라자, 살라 데 우스키(サーラ・デ・うすき)에 가면 종이로 만들어져 심플하지만 기품있는 히나 인형을 볼 수 있으며, 우스키 한정 히나 인형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위 두 장소 이외 에도 구 신코지(真光寺), 구가(久家) 창고 등에 약 3000개의 히나 인형이 전시되고, 이나바(稲葉) 저택에서는 쇼와시대 초기 히나 인형도 볼 수 있다.

에도시대 건축양식의 건물이 거리를 이루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우스키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시기를 맞추어 우스키 히나 순례도 함께 체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규모 축소하여 진행)

- 우스키 히나순례(うすき雛めぐり)  
일시 : 2021년 2월 5일(금) ~ 3월 7일(일)  
문의전화 : 0972-64-7130 (히나순례 실행위원회)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3월(제5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2화

연락을 받고 약 한달동안  
정신없이 출국준비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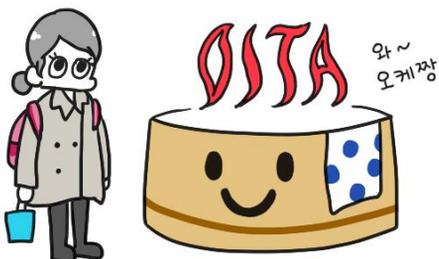
12월 3일, 일본에 도착했다.



코로나 때문에 2주동안  
나리타의 한 호텔에서 격리한 후에야



오이타에 도착할수 있었다.



담당자의 차를 타고 시내로 오며 보았던  
벚나무의 첫인상은 아름다웠고



지금은 좋아하는 바닷가 중  
하나가 되었다.



아무튼 오이타 도착후,  
같이 일할 직원분들께 인사드리러  
현청에 도착했는데... 

